

제150호(2017. 6. 30.)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1. 한·EU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수입가격 분석	6
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과 성과	15
4. 요약 및 시사점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마상진 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내용 문의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gnos@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한EU FTA 이행 6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9.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84.0%, 5년차 대비 10.1% 증가
 - 축산물의 수입 증가속도가 빨라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축산물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발효 전 평년 35.7%에서 이행 6년차 41.9%로 성장함.
- 한EU FTA 이행 6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9.6%, 5년차 대비 24.5% 증가
 - 수출액 비중이 높은 과일·채소류와 가공식품류의 수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곡물과 축산물 수출은 정체되어 있음.
- 이행 6년차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대비 1.7%p 증가한 85.2%,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5.0%p 감소한 50.0%
 - 돼지고기, 치즈 등은 수입액 비중이 큰 품목으로 99% 수준의 수입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음.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품목은 팥이버섯으로 99%를 상회하며, 김치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86.6%로 5년차(31.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이행 6년차 돼지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06.1%, 이행 5년차 대비 16.2% 증가
 - 2016년 돼지고기 국내 총 공급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2007~11년 평균 대비 5.4%p 증가함.
- 이행 6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244.1%, 이행 5년차 대비 35.6% 증가
 - 2016년 치즈 국내 총 공급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로 2007~11년 평균 대비 25.0%p 증가함.
-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10년간(2011~20년) 총 10조 8천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
 - 2011~16년 예산 6조 7천억 원 중 5조 8천억 원이 집행되어 투융자 예산 집행률은 86.4%임.
 - 지난 6년간 국내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수급안정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5년차 대비 10.1% 증가한 39.4억 달러

1. 한·EU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의 농축산물 개방 수준은 96.2%로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15건의 FTA 중 한·미 FTA(97.9%) 다음으로 개방 수준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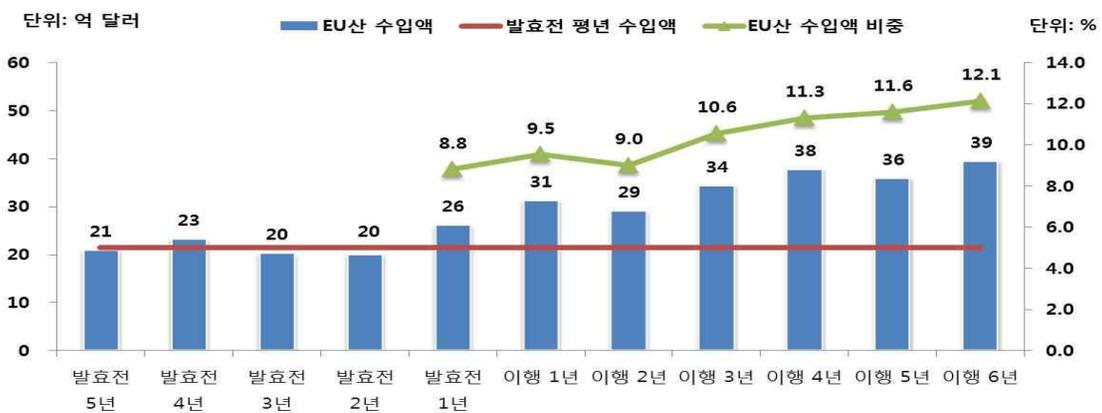
- 한·EU FTA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일부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20년의 장기철폐, 저율할당관세(TRQ),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을 적용
- 지난 6년간 관세 장기철폐를 적용한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TRQ 적용 품목 등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1.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 한·EU FTA 이행 6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9.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84.0%와 10.1% 증가

-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이행 5년차 대비 0.5%p 증가
 -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21.4(발효 전 평년) → 35.8(이행 5년차) → 39.4(이행 6년차)

그림 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본 장의 농축산물 교역통계는 각 연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으며, 농축산물 HS코드가 2016년 2,316개에서 2017년 3,068개로 변경됨에 따라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2016.7.1.)'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편, 이행 6년차의 경우 2017년 6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EU산 곡물 수입액은 이행 5년차 대비 감소,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은 증가

- 축산물 수입액은 EU 내 생산 감소²⁾에 따른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116.0%와 21.6% 증가
 - 돼지고기는 이행 5년차 6.5억 달러에서 이행 6년차 8.6억 달러로 32.6% 증가
 - 치즈, 유장, 조제분유 등 낙농품은 이행 5년차 3.4억 달러에서 이행 6년차 4.2억 달러로 25.3% 증가
 - EU 돼지고기 도축량(천 톤): 17,440('15.7.~'16.3.) → 17,312('16.7.~'17.3.)
 - EU 가공용 원유 생산량(천 톤): 113,489('15.7.~'16.3.) → 110,724('16.7.~'17.3.)
 - EU산 냉동삼겹살 수입단가(달러/kg): 3.36(이행 5년차) → 4.19(이행 6년차)
 - EU산 냉동돼지고기 수입단가(달러/kg): 2.10(이행 5년차) → 2.13(이행 6년차)
- 곡물 수입액은 우크라이나산 밀과 미국산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EU산 수입량 감소, 밀가루와 보리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이행 5년차 대비 15.7% 감소
 - 밀과 옥수수 수입액은 각각 6,762만 달러와 2,916만 달러로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21.1%와 60.4% 감소
- 과일·채소류의 수입액은 주스와 과즙음료 등 과일가공류의 수입 증가로 이행 5년차 대비 27.0% 증가
 - 기타 과실은 이행 5년차 2,780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3,695만 달러로 32.9% 증가
 - 과실혼합물은 이행 5년차 430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958만 달러로 122.8% 증가

표 1. EU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³⁾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전체	2,141	3,113	2,894	3,425	3,767	3,580	3,941	84.0	10.1
농산물	1,107	1,473	1,619	1,870	1,841	1,779	1,826	65.0	2.6
- 곡물	83	194	289	450	304	261	220	164.0	-15.7
- 과일·채소	58	71	87	88	102	105	134	129.9	27.0
- 가공식품	964	1,208	1,243	1,332	1,436	1,413	1,472	52.7	4.2
임산물	288	332	353	442	436	443	463	60.5	4.5
축산물	765	1,308	922	1,113	1,490	1,358	1,652	116.0	21.6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FTA 발효 직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값은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EU의 돼지고기 도축량과 가공용 원유 생산량 통계는 EUROSTAT(2017.6.20. 기준)에서 조회하였으며, 2017년 3월까지의 실측치만 존재함.

3) 한·EU FTA의 이행 연차는 각 연도 7월부터 익년 6월을 의미하며, '11/12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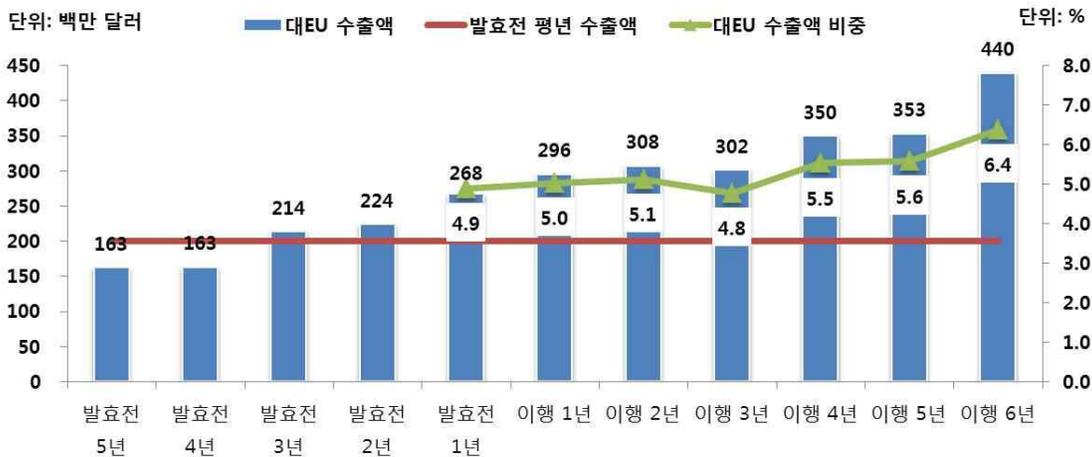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이행 5년차 대비 24.5% 증가한 4.4억 달러

1.2. 對EU 농축산물 수출액

□ 한·EU FTA 이행 6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119.6%와 24.5%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 수출액 중 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이행 5년차 대비 0.8%p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對EU 수출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액이 이행 5년차 대비 49.8% 증가
 -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2.0(발효 전 평년) → 3.5(이행 5년차) → 4.4(이행 6년차)

그림 2. 對EU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가공식품 수출액은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이행 5년차 대비 28.6% 증가
 - 혼합조제식료품은 이행 5년차 1.6억 달러에서 이행 6년차 2.4억 달러로 49.8% 증가
 - 커피조제품은 이행 5년차 3,044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3,323만 달러로 9.2% 증가
 - 라면은 이행 5년차 2,137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2,343만 달러로 9.7% 증가
- 과일·채소 수출액은 느타리버섯, 김치, 기타 과실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이행 5년차 대비 9.8% 증가
 - 느타리버섯은 이행 5년차 659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732만 달러로 11.0% 증가
 - 김치는 이행 5년차 457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536만 달러로 17.2% 증가

對EU 곡물, 과일·채소, 가공식품 수출액은 이행 5년차 대비 증가, 축산물은 감소

- 채소 중자는 이행 5년차 283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335만 달러로 18.2% 증가
- 기타 과실은 이행 5년차 177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227만 달러로 28.6% 증가
-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의 수출 감소로 이행 5년차 대비 21.4% 감소
 - 젤라틴은 이행 5년차 1,275만 달러에서 이행 6년차 898만 달러로 29.6% 감소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對EU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전체	200.4	296.0	307.6	301.6	350.0	353.4	440.0	119.6	24.5
농산물	182.8	273.7	283.2	279.2	320.7	327.2	416.5	127.8	27.3
- 곡물	0.8	1.4	1.1	0.9	1.0	0.9	1.7	109.2	82.5
- 과일·채소	16.1	18.3	22.0	25.3	24.2	25.0	27.4	70.4	9.8
- 가공식품	166.1	254.0	260.1	253.1	295.4	301.3	387.4	133.3	28.6
임산물	6.8	10.7	10.4	9.2	10.1	10.3	11.0	62.4	7.1
축산물	11.7	11.6	13.9	13.2	19.2	15.9	12.5	6.6	-21.4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FTA발효 직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값은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3. 농축산물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률⁴⁾

□ 이행 6년차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한 85.2%

- 이행 6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4.5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29.4억 달러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9.0(13/14) → 82.7(14/15) → 83.5(15/16) → 85.2(16/17)
 -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99.9%)와 치즈(98.8%)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년 증가해 100%에 근접한 활용률을 보임.
 - 오렌지(72.5%)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연차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행 6년차에는 5년차 대비 4.9%p 감소한 72.5%를 기록

4) 이행 6년차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계된 무역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EU산 수입품목 중 협정에 따라 양허된 품목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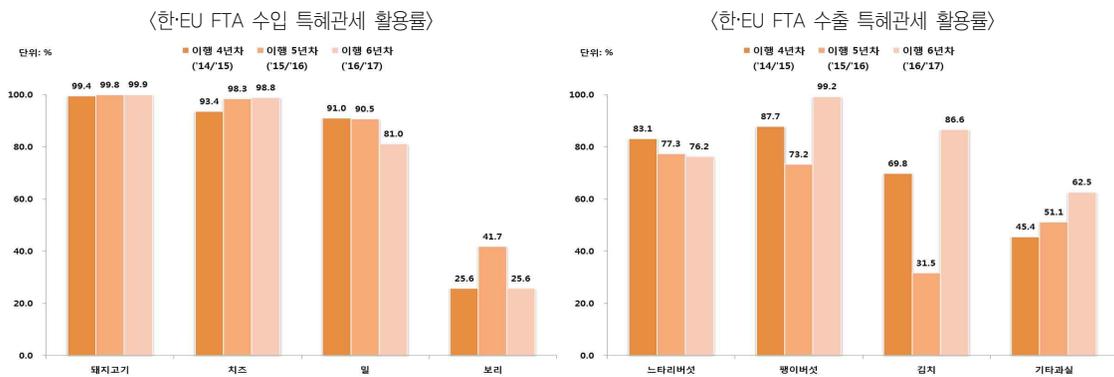
EU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5.2%, 對EU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0.0%

- 곡물 가운데 밀(81.0%)과 보리(25.6%)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밀이 보리보다 높은 활용률을 보임.

□ 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15.0%p 감소한 50.0%

- 이행 6년차 우리나라의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1억 달러⁵⁾이며, 그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2.1억 달러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69.9('13/'14) → 72.1('14/'15) → 64.9('15/'16) → 50.0('16/'17)
 - 신선농산물 가운데 느타리버섯(76.2%)과 팽이버섯(99.2%)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느타리버섯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팽이버섯은 이행 5년차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김치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에 31.6%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행 6년차에 5년차 대비 55.0%p 증가한 86.6%를 기록
 - 기타 과실과 기타 음료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11.4%p와 3.7%p 증가한 62.5%와 82.0%를 기록
 - 수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품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대비 43.8%p 감소한 36.2%를 기록

그림 3. 주요 농축산물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률



주: 특혜관세 활용률은 농축산물 관련 3,068개 HS코드(2017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7.1.)'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이행 6년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을 위한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집계한 값으로 앞서 언급한 對EU 농축산물 수출액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이행 5년차 대비 16.2% 증가한 24만 5천 톤

2.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수입가격 분석

2.1. 돼지고기

□ 한·EU FTA 이행 6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하락 및 국내 수요 증가로 이행 5년차 대비 16.2% 증가

- EU산 냉동돼지고기 기준관세율(25%)은 지난 5년에 걸쳐 철폐('16년 7월부터 무관세) 되었으며, 냉동·냉장삼겹살은 10년에 걸쳐 철폐
 - 이행 6년차 EU산 냉동돼지고기 관세율은 0%, 냉동삼겹살 11.3%, 냉장삼겹살 10.3%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닭고기 대체수요와 EU-러시아 간 돼지고기 수입금지 분쟁 등으로 5년차 대비 16.2% 증가한 24만 5천 톤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쇠고기 수요 감소와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및 HPAI로 인한 대체 수요로 돼지고기 수요 증가
 - 돼지 등급판정 두수(만 두)⁶⁾: 1,507('15.7.~'16.5.) → 1,534('16.7.~'17.5.)
 - 돼지고기 가격(원/kg, 탕박): 4,672('15.7.~'16.5.) → 4,739('16.7.~'17.5.)
 - 이행 6년차부터 무관세가 적용된 냉동돼지고기 수입량은 5년차 대비 18.4%, 냉동삼겹살은 13.8% 증가, 냉장삼겹살은 20.1% 감소

표 3.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소계	수입량	139,343	208,271	125,446	148,558	240,226	247,157	287,167	106.1	16.2
	비중	40.8	43.4	36.5	44.5	52.5	50.4	54.8	-	-
냉동 돼지고기	수입량	53,893	84,242	53,344	54,308	126,476	125,211	148,312	175.2	18.4
	비중	25.7	28.6	23.7	23.2	42.7	40.0	45.2	-	-
냉동 삼겹살	수입량	76,459	113,650	62,833	80,308	97,295	103,260	117,551	53.7	13.8
	비중	79.3	87.0	79.5	86.7	87.7	84.8	87.3	-	-
냉장 삼겹살	수입량	54	952	108	112	272	374	299	453.7	-20.1
	비중	0.4	3.7	0.7	1.4	2.7	3.2	2.2	-	-

주 1)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HS코드는 각각 0203299000, 0203291000, 0203191000임.

2) 비중은 해당 품목별 EU산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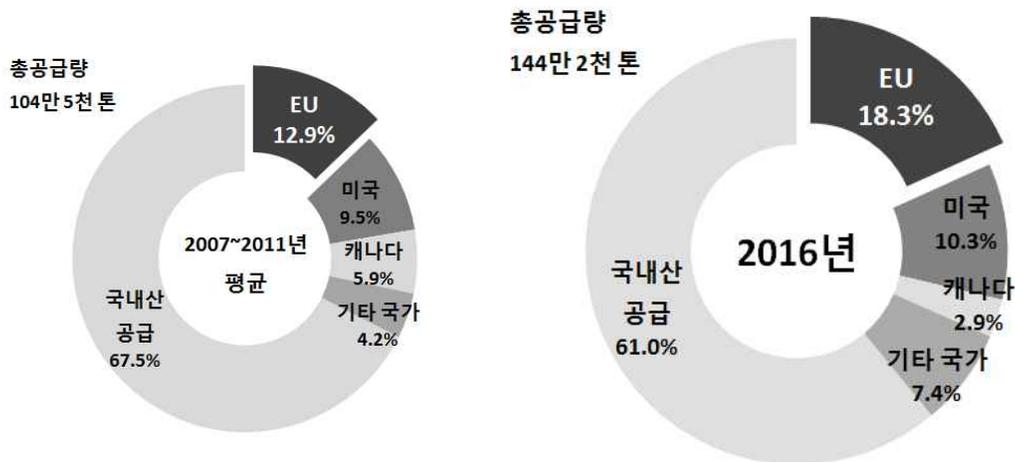
6) 돼지 등급판정 두수 및 돼지고기 가격의 경우 2017년 6월 자료가 산출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11개월(7월~5월) 간의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6년 국내 돼지고기 총공급량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11년 평균 대비 5.4%p 상승한 18.3%

□ 2016년 국내 돼지고기 총공급량 중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은 18.3%로, 2007~11년 평균⁷⁾ 대비 5.4%p 증가

- 2016년 돼지고기 총공급량은 국내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2007~11년 평균(104만 4천 톤) 대비 38.0% 증가한 144만 2천 톤
 -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kg): 19.2('12) → 20.9('13) → 22.2('14) → 22.8('15) → 23.3('16)⁸⁾
 - 2016년 국내 총공급량의 2007~11년 평균 대비 증가분(39만 6천 톤) 중 국내산 증가분은 18만 톤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EU산과 미국산은 각각 32.9%와 12.8%를 차지⁹⁾
 - 2016년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88만 톤)은 2007~11년 평균 대비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6.5%p 감소한 61.0%
 - 2016년 EU산 수입량 비중은 2007~11년 평균 대비 5.4%p 증가한 18.3%, 미국산과 기타국가의 수입 비중은 증가한 반면 캐나다산은 감소 추세
 - EU산 수입량 비중(%): 13.8('12) → 10.7('13) → 15.7('14) → 18.1('15) → 18.3('16)
 - 미국산 수입량 비중(%): 11.2('12) → 9.3('13) → 9.6('14) → 10.8('15) → 10.3('16)
 - 캐나다산 수입량 비중(%): 5.3('12) → 3.6('13) → 3.0('14) → 3.4('15) → 2.9('16)

그림 4.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비중 변화



주 1) 국내산 공급량=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
 2) 2016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KREI KASMO(2016) 추정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7) 2007~11년 평균은 각 연도별 수입량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을 의미함.
 8) 2016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9) 기타 국가에서의 수입량 증가분은 전체 증가분의 16.0%를 차지, 캐나다는 5.0% 감소.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의 관세율 인하 효과는 10.0~20.0%로 추정

- 한·EU FTA 이행 6년차 관세율이 철폐된 냉동돼지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과 이행 5년차 대비 하락했으나, 냉동 및 냉장 삼겹살은 각각 10% 이상 상승
 - EU산 냉동·냉장삼겹살의 관세율은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2.3%p와 2.0%p 하락했으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각각 18.7%와 15.5% 상승
 - 냉동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적용으로 4.9% 하락

표 4.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소계	3,735	4,493	3,973	3,886	3,846	3,433	3,714	-0.6	8.2
냉동돼지고기	2,563 (25.0)	2,800 (20.8)	2,398 (16.6)	2,395 (12.5)	2,947 (8.3)	2,558 (4.1)	2,432 (0.0)	-5.1	-4.9
냉동삼겹살	4,592 (25.0)	5,707 (22.7)	5,304 (20.4)	4,889 (18.1)	5,006 (15.9)	4,483 (13.6)	5,321 (11.3)	15.9	18.7
냉장삼겹살	6,948 (22.5)	9,446 (20.4)	7,190 (18.4)	7,594 (16.3)	7,098 (14.3)	6,748 (12.2)	7,795 (10.2)	12.2	15.5

주 1) 소계는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을 대상으로 산출.
 2)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량×수입단가×(1+관세율)×평균환율/수입량
 3) ()는 해당 품목의 연도별 협정관세율.
 4) 냉장삼겹살의 발효 전 평년은 수입실적이 없는 관계로 '09.7.~'10.6.을 제외한 4개 연도의 평균으로 계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 한·EU FTA 이행 6년차 돼지고기 주요 부위의 수입가격은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FTA 미발효 가정 대비 10.0~20.0% 하락 추정
 - 이행 6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을 FTA 미발효를 가정한 수입가격과 비교한 결과, 냉동돼지고기는 20.0%, 냉동삼겹살은 11.0%, 냉장삼겹살은 10.0%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5. EU산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 효과(이행 6년차 기준)

단위: 원/kg, %

구분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기준관세율 적용 수입가격(A)	3,039	5,976	8,665
6년차 협정관세율 적용 수입가격(B)	2,432	5,321	7,795
관세율 인하 효과(B/A)	-20.0	-11.0	-10.0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이행 5년차 대비 35.6% 증가한 13만 3천 톤

2.2. 유제품

□ 한·EU FTA 이행 6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 및 TRQ 증량, 수입단가 하락으로 이행 5년차 대비 35.6% 증가

- 주요 유제품 중 치즈 및 조제분유는 관세할당물량(TRQ) 증량 및 협정관세율 장기 철폐, 탈·전지분유는 관세율(176%) 인하 없이 TRQ만 연차별로 증량
 - 치즈의 TRQ는 4,560톤에서 매년 복리 3% 증량, 관세율은 15년(카드, 블루바인 치즈는 10년) 철폐
 - 탈·전지분유의 TRQ는 1,000톤에서 매년 복리 3%씩 증량(16년차 1,512톤으로 고정)
 - 조제분유의 TRQ는 450톤에서 매년 복리 3%씩 증량, 관세는 10년 철폐
- 이행 6년차 EU산 유제품 수입량(13.3만 톤)은 지속적인 수입단가 하락과 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단가로 인해 이행 5년차 대비 35.6% 증가
 - EU산 치즈 수입량은 TRQ 증량, 관세율 인하 및 수입단가 하락으로 이행 5년차 대비 19.1% 증가했으며, 수입량 비중은 2.6%p 증가한 37.9%
 - EU산 탈·전지분유 수입량은 이행 5년차 대비 7.6% 증가했으나, 수입량 비중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뉴질랜드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2.0%p 감소한 34.9%
 - EU산 조제분유 수입량은 EU산 조제분유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및 관세율 인하, TRQ 증량 등으로 이행 5년차 대비 30.1% 증가했으며, 수입량 비중은 5.7%p 증가한 60.6%

표 6. EU산 유제품 TRQ 및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소계	수입량	38,701	79,324	58,006	64,692	82,886	98,198	133,168	244.1	35.6
	비중	25.2	35.6	28.8	31.0	35.8	40.9	47.2	-	-
치즈	수입량	5,183	10,998	12,323	10,625	24,300	38,124	45,393	775.8	19.1
	비중	10.3	14.9	14.5	12.1	22.5	35.3	37.9	-	-
	TRQ 기준량	-	4,560	4,560	4,696	4,837	4,982	5,131	-	-
탈·전지 분유	수입량	1,255	24,782	5,889	8,227	8,978	8,733	9,399	648.9	7.6
	비중	13.6	63.7	33.3	35.1	39.1	36.9	34.9	-	-
	TRQ 기준량	-	1,000	1,000	1,030	1,060	1,092	1,125	-	-
조제 분유	수입량	93	428	787	1,048	1,474	2,017	2,624	2,721.5	30.1
	비중	8.2	15.1	31.6	36.8	48.9	54.9	60.6	-	-
	TRQ 기준량	-	450	450	463	477	491	506	-	-

주 1) 소계는 치즈, 탈·전지분유, 조제분유를 포함한 유제품 전체 수입량을 나타냄

주 2) 치즈의 경우 크림치즈(HS코드: 0406101010), 체더치즈(HS코드: 0406901000) 등 12개 품목을 포함하며, 탈·전지분유의 HS코드는 각각 0402101010, 0402211000, 조제분유의 HS코드는 19011010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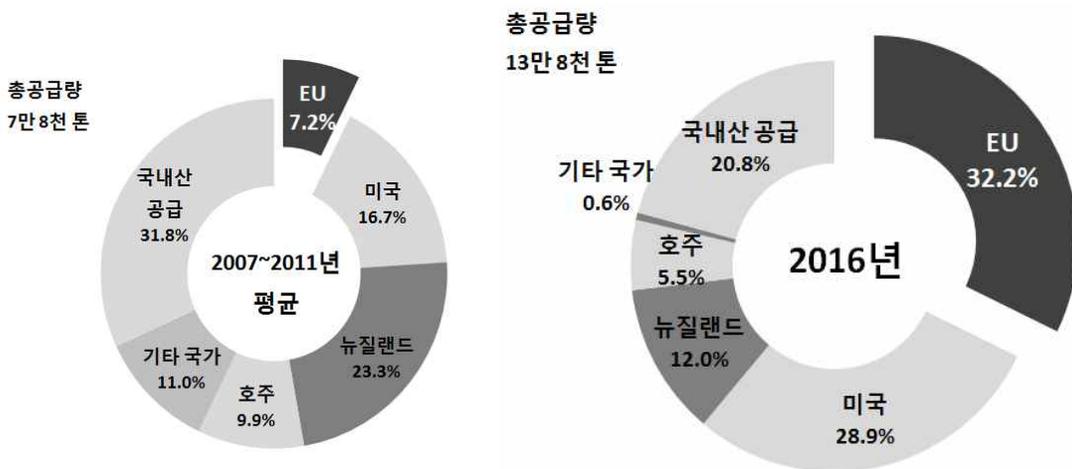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016년 국내 치즈 총공급량 중 EU산 비중은 2007~11년 평균 대비 25.0%p 상승한 32.2%

□ 2016년 국내 치즈 총공급량 중 EU산 치즈 수입량 비중은 32.2%로, 2007~11년 평균 대비 25.0%p 증가

- 국내 치즈 총공급량은 2007~11년 평균(7만 8천 톤) 대비 77.2% 증가한 13만 8천 톤
 - 2016년 국내 총공급량의 2007~11년 평균 대비 증가분(6만 톤) 중 EU산 증가분은 3만 9천 톤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미국산과 국내산은 각각 44.8%와 6.8%를 차지¹⁰⁾
 - 2016년 국내산 치즈 공급량(2만 9천 톤)은 2007~11년 평균 대비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11.0%p 감소한 20.8%
 - 국내 총공급량 중 EU산 비중은 2007~11년 평균 7.2%에서 2016년 32.2%로 25.0%p 증가
 - 미국산 수입량 비중은 2007~11년 평균 대비 12.2%p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수입량 비중은 각각 11.1%p와 4.4%p 감소
 - EU산 수입량 비중(%): 11.5('12) → 10.1('13) → 13.0('14) → 23.7('15) → 32.2('16)
 - 미국산 수입량 비중(%): 31.9('12) → 39.6('13) → 52.8('14) → 40.7('15) → 28.9('16)
 - 뉴질랜드산 수입량 비중(%): 23.9('12) → 22.2('13) → 8.4('14) → 11.6('15) → 12.0('16)
 - 호주산 수입량 비중(%): 7.5('12) → 5.3('13) → 4.4('14) → 6.0('15) → 5.5('16)

그림 5. 국내 치즈 공급량 비중 변화



주: 국내산 공급량=국내 생산량+수입량-수출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낙농진흥회.

10) 호주 및 뉴질랜드, 기타국가에서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전체 증감분의 -15.4%를 차지.

EU산 주요 유제품 수입가격의 관세율 인하 효과는 7.6~16.8%로 추정

□ 한·EU FTA 이행 6년차 EU산 치즈 및 탈·전지분유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하락한 반면 조제분유의 수입가격은 상승

- EU산 치즈와 탈·전지분유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 TRQ 증량 및 관세율 인하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수요가 증가한 조제분유의 수입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 EU산 치즈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과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78.9%와 12.5% 하락
 - EU산 탈·전지분유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8.0% 하락했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행 5년차 대비 3.8% 상승
 - EU산 조제분유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상승(110.4%)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43.1% 상승

표 7. EU산 유제품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치즈	9,514 (36.0)	8,569 (33.7)	8,372 (31.5)	9,298 (29.2)	7,127 (27.0)	6,077 (24.7)	5,318 (22.5)	-78.9	-12.5
탈·전지분유	11,584 (176)	10,711 (176)	9,256 (176)	12,062 (176)	9,759 (176)	7,066 (176)	7,332 (176)	-58.0	3.8
조제분유	14,197 (36.0)	22,822 (32.7)	23,353 (29.4)	24,644 (26.1)	26,351 (22.9)	26,543 (19.6)	24,944 (16.3)	43.1	-6.0

주 1)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량×수입단가×(1+관세율)×평균환율/수입량
 2) 각 품목별 협정관세율과 TRQ 기준물량을 고려하여 수입가격을 도출하였으며, 조제분유의 경우 전체 TRQ 물량을 조제분유(HS코드: 1901101010)에 모두 소진하였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
 3) ()안의 수치는 연차별 협정관세율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 한·EU FTA 이행 6년차 주요 유제품의 수입가격은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 및 TRQ 증량으로 FTA 미발효 가정 대비 7.6~16.8% 하락 추정

- 이행 6년차 EU산 유제품 수입가격과 FTA 미발효를 가정한 수입가격을 비교한 결과, 치즈는 11.9%, 탈·전지분유는 7.6%, 조제분유는 16.8%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8. EU산 주요 유제품 관세율 인하 효과(이행 6년차 기준)

단위: 원/kg, %

구분	치즈	탈·전지분유	조제분유
기준관세율 적용 수입가격(A)	6,033	7,937	29,978
6년차 협정관세율 적용 수입가격(B)	5,318	7,332	24,944
관세율 인하 효과(B/A)	-11.9	-7.6	-16.8

EU산 밀과 옥수수 수입량은 5년차 대비 감소, 보리는 증가

2.3. 곡물

□ 한·EU FTA 이행 6년차 EU산 주요 곡물 수입량(57만 1천 톤)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16.7% 증가했으나, 5년차 대비 32.8% 감소

- FTA 이행 6년차 EU산 밀¹¹⁾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397% 증가한 34만 1천 톤으로 밀가루 수입량은 소폭 증가 추세를, 사료용 밀은 감소 추세를 보임.
 - EU산 밀 수입량 가운데 사료용 밀 수입량(33만 3천 톤)은 97.8%, 밀가루 수입량(3,128톤)은 0.9%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 대비 각각 15.8%와 12.2%를 차지
 - 사료용 밀 수입은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여건¹²⁾에 따라 북미·호주·인도·EU 등으로 다변화되었으며, EU산 사료용 밀 수입은 이행 3년차부터 본격화됨.
 - EU산 사료용 밀 수입량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증가¹³⁾ 등으로 FTA 발효 전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33.6%와 12.6% 감소
- EU산 옥수수¹⁴⁾ 수입량은 사료용과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과 5년차 대비 각각 3.4%와 60.1% 감소한 16만 5천 톤을 기록
 - EU산 옥수수 수입량 가운데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 수입량(15만 6천 톤)이 전체의 94.6%, 증감을 반복한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6,402톤)은 3.9%를 차지
 - EU산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 수입량은 2012/13년 이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¹⁵⁾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평년 11.8%, 이행 5년차 7.2%, 이행 6년차 6.7%로 점차 감소함.
 - 우리나라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 중 EU산 비중은 평균 1% 내외에 불과하며, 최근 미국과 브라질산 수입 증가 등으로 이행 5년차 대비 97.4% 감소
- FTA 이행 6년차 EU산 보리¹⁶⁾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생맥아 및 맥주맥 수

11) 메슬린(종자용, 제분용, 가루) 관련 제품(1.8~3%)과 불거밀(8%)의 기준관세율은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었으며, 밀가루(4.2%)는 4단계, 밀 분쇄물·조분과 밀 펠릿의 기준관세율(288.2%)은 11단계에 걸쳐 철폐됨.

12) 2007~2008년 세계 곡물 파동, 2010년과 201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밀 금수조치, 2012년과 2014년 미국의 가뭄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바 있음.

13)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은 2012/13년 1,576만 톤에서 2016/17년 2,680만 톤으로 70.0% 증가함.

14) 사료용과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의 기준관세율(328%)은 각각 6단계(16.7.)와 14단계(24.7.), 옥수수 분쇄물·조분(162.9%)과 옥수수 가공곡물(167%)은 각각 11단계에 걸쳐 철폐되며, 옥수수가루(5%)는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됨.

15)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2/13년 2억 7,319만 톤에서 2016/17년 3억 8,478만 톤으로 40.8% 증가함.

16) 겉보리(324% 또는 326원/kg 중 고액(울))과 쌀보리(299.7% 또는 361원/kg중 고액(울))는 양허제외, 생맥아(269%)와 맥주맥(513%)은 TRQ를 적용하고 TRQ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16단계에 걸쳐 철폐하는 대신 ASG를 16년간 운영(이행 6년차 발동 수준은 15,154톤이며, 관세율은 생맥아 240%, 맥주맥 408%를 적용)

EU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5년차 대비 상승, 밀가루와 보리는 하락

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795%, 5년차 대비 36.1% 증가한 6만 5천 톤

- EU산 보리 수입량 가운데 생맥아·맥주맥 수입량(6만 4천 톤)은 98.8%를 차지하고, 기타 보리 수입량(794톤)은 1.2%를 차지
- EU의 보리 생산량 증가와 생맥아(맥주맥 포함)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EU산 생맥아·맥주맥 수입량이 발효 전 평년 1,052톤에서 이행 6년차 6만 4천 톤으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평년 0.7%에서 이행 6년차 28.5%로 크게 증가¹⁷⁾

표 9. EU산 주요 곡물 수입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소계	수입량	180	337	634	1,291	873	849	571	216.7	-32.8
	비중(%)	1.5	2.6	4.5	9.0	6.1	5.8	4.0	-	-
밀	수입량	8	1	1	865	565	387	341	4,397.3	-12.0
	비중(%)	0.2	0.0	0.0	20.8	14.9	9.1	7.6	-	-
옥수수	수입량	171	320	619	409	265	414	165	-3.4	-60.1
	비중(%)	2.2	4.2	7.4	4.2	2.6	4.1	1.7	-	-
보리	수입량	2	16	14	17	43	47	65	3,795.2	36.1
	비중(%)	0.9	6.1	4.9	5.9	13.3	18.8	26.1	-	-
	TRQ 기준량	-	10,000	10,000	10,800	11,600	12,400	12,772	-	-
	ASG 기준량	-	14,000	14,000	14,280	14,565	14,856	15,154	-	-

주: 비중은 해당 품목별 EU산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EU FTA 이행 6년차 옥수수 관련 제품의 수입가격은 이행 5년차 대비 상승했으나, 밀가루와 생맥아·맥주맥의 수입가격은 하락

- 이행 6년차 종자·팝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 수입가격(557원/kg)은 일시적인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이행 5년차 대비 10.9%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5.9% 하락
- 이행 6년차 밀가루 수입가격(964원/kg)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8.8% 상승했으나, 이행 5년차 대비 15.5% 하락
- 이행 6년차 보리 수입가격(1,557원/kg)은 전반적인 수입단가 하락과 TRQ·ASG 기준 물량 확대로 FTA 발효 전 평년과 이행 5년차 대비 각각 44.5%와 14.8% 하락

17) EU의 보리 생산량은 2011/12년 5,188만 톤에서 2016/17년 6,000만 톤으로 15.6% 증가했고, 생맥아(맥주맥 포함) 수입단가는 발효 전 평년 kg당 0.7달러에서 이행 6년차 0.44달러로 37.4% 하락함.

EU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의 관세율 인하 효과는 2.9~32.9%로 추정

표 10. EU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변화율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5년차 (15/16) (B)	6년차 (16/17) (C)	C/A	C/B	
밀(밀가루)	748 (4.2)	1,115 (3.1)	998 (2.1)	1,030 (1.0)	928 (0.0)	1,141 (0.0)	964 (0.0)	28.8	-15.5	
옥수수	기타 옥수수	1,263 (328.0)	1,588 (304.5)	1,530 (281.1)	1,207 (257.7)	830 (234.2)	503 (210.8)	557 (187.4)	-55.9	10.9
	옥수수 가루	665 (5.0)	742 (0.0)	721 (0.0)	746 (0.0)	825 (0.0)	726 (0.0)	779 (0.0)	17.1	7.4
보리(생맥아·맥주 맥)	2,805 (269.0) (513.0)	1,032 (252.1) (480.9)	1,075 (235.3) (448.8)	1,172 (218.5) (416.8)	1,647 (201.7) (384.7)	1,827 (184.9) (352.6)	1,557 (168.1) (320.6)	-44.5	-14.8	

주 1)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량×수입단가×(1+관세율)×평균환율/수입량이며, 보리의 경우 TRQ와 ASG 기준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함.
 2) 평균환율은 각 이행연차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KEB하나은행 고시환율의 매매기준 평균환율을 적용함.
 3) ()는 해당 품목의 연도별 협정관세율이며, 보리는 순서대로 각각 생맥아와 맥주맥의 TRQ 초과 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 한·EU FTA 이행 6년차 주요 곡물(밀, 옥수수, 보리)의 수입가격은 기준관세율 철폐 또는 인하의 영향으로 FTA 미발효 가정 대비 2.9~32.9% 하락 추정

- 종자·팍콘·사료용 이외 기타 옥수수는 관세율 인하폭(23.4%p)이 크고, 보리는 TRQ 기준 물량의 연차별 확대로 관세율 인하 효과가 각각 32.9%와 15.4%로 비교적 크게 나타남.
-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는 기준관세율이 조기에 철폐되어 관세율 인하 효과가 각각 2.9%와 4.8%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11. EU산 주요 곡물 관세율 인하 효과(이행 6년차 기준)

단위: 원/kg, %

구분	밀(밀가루)	옥수수		보리(생맥아·맥주맥)
		기타 옥수수	옥수수 가루	
기준관세율 적용 수입가격(A)	964	557	779	1,557
6년차 협정관세율 적용 수입가격(B)	993	830	818	1,841
관세율 인하 효과(B/A)	-2.9	-32.9	-4.8	-15.4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6.7조 원 중 86.4%인 5.8조 원 집행

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과 성과

3.1.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 정부는 2011~2020년까지 10년간 총 10조 8천억 원¹⁸⁾ 규모의 국내보완대책 수립

-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해 10년간 10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 수립
 -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6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원유수급안정, 가공원료유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개량 등 26개 세부사업 시행

□ 2011~2016년까지 6년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 6조 7천억 원 중 86.4% 집행

- 2011~2016년까지 추진한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6조 6,575억 원 가운데 86.4%인 5조 7,529억 원 집행
 -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 및 담보 부담으로 융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고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어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2016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1조 845억 원 가운데 86.9%인 9,420억 원 집행

그림 6.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대책 예산과 집행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8) 타 FTA 국내보완대책과 중복사업, 기간연장, 증액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임.

표 12.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단위: 억 원

분야	사업명	'11	'12	'13	'14	'15	'16	'17	'18~20	총계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사시설현대화	1,633	2,760	2,200	1,692	1,544	1,401	1,549	2,427	15,206
	축산경영종합자금	1,226	1,396	1,356	1,356	1,416	1,416	1,416	6,633	16,215
	사료산업종합지원	400	600	950	1,000	930	722	583	2,776	7,961
	도축기공업체지원	1,500	1,500	1,500	1,500	1,700	1,700	1,700	4,608	15,708
	종축전문화지원	112	247	147	89	-	-	-	-	595
	송이자경매시설현대화	5	10	9	9	-	-	-	-	33
	가족 및 계관수송 특장차량지원	8	15	13	13	-	-	-	-	49
	농식품시설현대화	70	70	70	-	-	-	-	-	210
	쇠고기생산성향상	30	25	18	-	-	-	-	-	73
	한우농기조직화지원	50	-	-	-	-	-	-	-	50
	농축산전사체험홍보관설립	15	-	-	-	-	-	-	-	15
	축산종합지도지원	18	-	-	-	-	-	-	-	18
소계	5,067	6,623	6,263	5,659	5,590	5,239	5,248	16,444	56,133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차조금	248	214	214	193	230	250	260	379	1,988
	송이자생산안정지원	68	426	43	13	43	6	7	35	641
	원유수급안정 (학교급식 수급조절)	305	333	416	482	754	585	520	1,098	4,493
	가공원료유지원	100	72	100	122	140	170	170	643	1,517
	원유수급안정	5	4	-	-	-	-	-	-	9
	소계	726	1,049	773	810	1,167	1,011	957	2,155	8,648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이력제	154	165	182	182	223	203	194	523	1,826
	축산물HACCP인증지원	65	72	-	-	-	-	-	-	137
	소계	219	237	182	182	223	203	194	523	1,963
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65	1,240	1,540	1,577	1,363	1,190	1,043	3,062	12,070
	가족분노처리시설	801	708	870	976	815	1,143	1,010	1,662	7,985
	친환경축산작물	30	70	102	173	179	178	178	873	1,784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2	242	224	310	279	-	-	-	1,297
	소계	2,138	2,260	2,736	3,036	2,636	2,511	2,231	5,597	23,136
가족질병 대응	시도가족방역	1,575	803	783	1,020	1,138	991	943	4,830	11,844
	가족위생방역본부	223	198	208	213	397	249	254	770	2,375
	소계	1,798	1,001	991	1,233	1,535	1,240	1,197	5,600	14,219
축산기술 보급	가족개량지원	344	327	408	397	477	641	522	762	3,878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7	7	7	7	-	-	-	26	54
	소계	351	334	415	404	477	641	522	788	3,932
총계	10,299	11,504	11,360	11,324	11,243	10,845	10,349	31,107	108,0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시행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수급 안정 등 가시적 성과

3.2.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 지난 6년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수급 안정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

- FTA 국내보완대책은 정부의 정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 생산성, 수급 및 안전성 관리, 기술보급 등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¹⁹⁾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 사업 시행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돼지 생산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는 PED(돼지설사병) 등 질병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15~’16)하였으나, ‘비육돈 일당 증체량’은 증가 추세를 보임.
 -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13.8(’08) → 15.1(’10) → 18.1(’14) → 17.8(’15) → 17.8(’16)
 - 비육돈 일당 증체량(kg/일): 0.62(’00) → 0.65(’05) → 0.66(’10) → 0.67(’15)
 - 낙농 분야의 ‘젖소 두당 산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은 10,360kg으로 전년(10,070kg) 대비 290kg 증가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 시행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및 사료가격 안정, 사료 품질 향상에 기여
 - 사료가격 변동률 일정 수준(5%)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사료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사료가격 변동계수(%): 2.44(’12) → 4.29(’13) → 2.61(’14) → 7.85(’15) → 3.41(’16)
 - 사료 품질 부적합률(%): 2.1(’12) → 2.0(’13) → 1.8(’14) → 1.0(’15) → 0.9(’16)
- 원유수급안정,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은 원유 수급 안정, 잉여원유 활용성 증대에 기여
 - 학교우유 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과 함께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국내 정상 원유가격과 국제 분유가격의 차액을 보전하여 잉여 원유 127,618톤을 분유 생산에 활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꾸준히 자원화하여 국내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
 - 2016년 가축분뇨 4,698만 톤 중 90.6%인 4,264만 톤(퇴비: 3,748만 톤, 액비: 516만 톤) 자원화
 - 가축분뇨자원화율(%): 84.3(’08) → 86.6(’10) → 88.7(’12) → 89.7(’14) → 90.6(’16)

19)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참조



4. 요약 및 시사점

- 한-EU FTA 이행 6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9.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84.0%, 5년차 대비 10.1% 증가
 - 축산물의 수입 증가속도가 빨라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축산물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발효 전 평년 35.7%에서 이행 6년차 41.9%로 성장함.

- 한-EU FTA 이행 6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9.6%, 5년차 대비 24.5% 증가
 - 수출액 비중이 높은 과일·채소류와 가공식품류의 수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곡물과 축산물 수출은 정체되어 있음.

- 이행 6년차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1.7%p 상승한 85.2%,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15.0%p 하락한 50.0%
 - 돼지고기, 치즈 등은 수입액 비중이 큰 품목으로 99% 수준의 수입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음.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품목은 팥이버섯으로 99%를 상회하며, 김치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86.6%로 5년차(31.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이행 6년차 돼지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06.1%, 이행 5년차 대비 16.2% 증가
 - 2016년 돼지고기 국내 총 공급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2007~11년 평균 대비 5.4%p 증가함.

- 이행 6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244.1%, 이행 5년차 대비 35.6% 증가
 - 2016년 치즈 국내 총 공급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로 2007~11년 평균 대비 25.0%p 증가함.

□ 한EU FTA 국내 보완대책은 10년간(2011~20년) 총 10조 8천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

- 2011~16년 예산 6조 7천억 원 중 5조 7천억 원이 집행되어 투융자 예산 집행률은 86.4%임.
- 지난 6년간 국내 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수급안정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

□ 국내 축산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요 축산물의 수입과 국내 생산이 증가함.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물 생산이 성장하는 것은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함.

- 한EU FTA 이후 돼지고기 자급률은 67.5%(2007~11년 평균)에서 61.0%(2016년)로 하락하였으나, 같은 기간 돼지고기 생산량은 705천 톤에서 880천 톤으로 증가함.
- 치즈 자급률은 31.8%에서 20.8%로 하락하였으나, 같은 기간 치즈 국내 생산량은 25천 톤에서 29천 톤으로 증가함.

□ 품목 부류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품목별 격차가 있음. 한EU FTA 이후 對EU 수출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특혜관세 활용률 저조는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수출액 추이(백만 달러): 200.4(발효 전 평년)→301.6(3년차)→353.4(5년차)→400.0(6년차)
- 특혜관세 활용률(%): 69.9(3년차)→72.1(4년차)→64.9(5년차)→50.0(6년차)

KREI 농정포커스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6. 30.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이크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9-11-6149-040-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